

보신탕집 접고 업종 변경...“정부 폐업 대책 마련을”

‘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광주·전남 식당들 비상

3년 유예기간 적용에도 수년 간 해온 장사 접으려니 막막 동물보호단체 “사육농장 조사 등 정부·지자체 역할 중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십년 동안 개고기를 취급해온 광주·전남 식당들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3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수년간 판매해온 음식을 바꾸거나 폐업을 고민해야할 처지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에 등록된 개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은 총 4곳(동구·남구 각 2곳)이다. 전남도는 개고기 관련 업체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있지만 지역마다 유명 보신탕 식당이 영업하고 있다.

보신탕(개고기)은 과거에는 복달임의 대표 음식이자 기력회복 음식으로 꼽혔지만, 수년간 개고기 식용 논쟁이 지속되면서 광주·전남에는 개고기를

판매하는 업체는 점차 감소세였다.

하지만 단골 손님들 때문에 명맥을 유지해온 광주·전남의 유명 보신탕 집들이 지난 9일 일명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업주들은 업종변경을 계획하고 있지만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광주 남구에서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A씨는 “겨울은 비수기라 아직까지 외달지는 않지만 여름에는 하루 50그릇 이상 판매될만큼 수요가 높기때문에 그때가 되면 매출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흑염소로 업종 변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화순의 한 보신탕집 관계자 B씨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보신탕 수요가 예전보다 줄었지만 꾸준히 찾는 단골이 많아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나주에서 개고기를 받아오고 있었는데 앞으로 개고기 유통이 불가능하면 어쩌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개고기를 유통해온 업체들도 문을 닫고 있다.

10일 오후 찾은 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 1년 전까지만 해도 ‘개고기 판매’ 간판을 걸고 장사하던 가게들은 폐업해 문을 닫고 없었다. 한때 개고기와 개소주를 판매하는 가게로 북적이던 이곳에서 ‘보신탕’ 간판을 걸어놓고 있는 곳은 골목 어귀 한 곳에 불과했다.

업주들은 정부가 생업을 못하게 된 만큼 영업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고기를 유통하던 한 업주는 “정부가 법을 바꿔 하루 아침에 수십년간 해온 영업을 못하게 돼 거리로 나왔게 됐다”면서 “유통을 못하게 된 업주와 식당업주까지 정부가 보상을 마련해 알맞는 보상을 해주고 업종 변경시 정착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권보호단체들도 개식용 금지법 제정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경 한국반려동물진흥원 교육센터장은 “개식용 금지와 동시에 식당이 문을 닫고 개농장도 폐업하게 되면서 농장주들이 사육을 포기하고 개를 유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보상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는 무허가 개 사육농장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개농장 사육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개 식용 금지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할 경우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은 지자체장에 시설과 영업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곳의 폐업과 전업을 지원한다. 다만 개, 개 관련 식품을 섭취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10일 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의 한 식당에 보신탕 판매 입간판이 놓여 있다.



포트홀 메우기 한창

10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의 한 이면 도로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폭설과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포트홀(도로 파임 현상)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5·18기념재단 ‘5월 왜곡’ 인터넷신문 기자 고발

5·18기념재단이 5·18 왜곡·편향 기사를 잇따라 게재한 인터넷신문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5·18기념재단은 10일 서울지역 한 인터넷신문 기자 A씨를 5·18특별법 위반(허위사실유포 금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A씨가 지난해 6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5·18진실 찾기’라는 제목으로 5·18을 왜곡·편향하는 기사를 모두 28회 연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A씨의 기사에는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폭동’, ‘5·18은 북한의 고도의 군사·정치적 책동에 의한 것’, ‘북한군이 광주로 잠입해 차량·무기를 탈취하고, 계엄군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민을 학살’ 등 왜곡된 내용이 담겼다.

또 ‘광주에서 활약한 북한군 일부가 북한으로 돌아가 고위직을 역임’, ‘5·18당시 계엄군에 의한 살상은 없으며, 적색분자들이 5·18을 성역화하며 국민 여론을 분열’, ‘5·18을 기리는 시민들은 북한의 책동에 기망당한 것’ 등 편향하는 내용도 실렸다.

이 인터넷신문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실은 특별판 중이 신문을 발간했는데, 지난 2일 허석 전 인천시의회 의장을 통해 인천시의회 의원실에 배포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A씨의 기사에는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폭동’, ‘5·18은 북한의 고도의 군사·정치적 책동에 의한 것’, ‘북한군이 광주로 잠입해 차량·무기를 탈취하고, 계엄군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민을 학살’ 등 왜곡된 내용이 담겼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에 삼중수소 장비 들인다...안전 수산물 기대

전남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영향을 받은 수산물을 걸러내기 위해 삼중수소 검사장비를 도입한다.

9일 전남해양수산과학원과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에 따르면 두 기관은 올해 상반기 중 삼중수소 분석 장비인 ‘액체섬광계수기’를 3월 중에 구매한다. 전남에 삼중수소 분석 장비가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방사성 물질의 일종인 삼중수소는 기존 오염수 정화 장비인 다핵종제거설비로는 걸러지지 않아 체내 축적돼 DNA 변형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이번 액체섬광계수기 도입으로 생산과 유통 2개 단계에 걸쳐 삼중수소를 분석할 수 있어 전남 수산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생산 단계에서는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양식장과 위판장 등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을 한차례 검사하

고 유통 단계에서는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지자체 식품 위생과에서 수거한 식품을 검사하게 된다.

장비는 대당 3억원으로 전액 도비로 구입한다.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삼중수소시험법을 고시하면서 전남도는 이달 중 장비심의위원회를 열고 3월 중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광주시는 삼중수소 분석 장비 도입 계획이 없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매 의사는 있지만 광주는 바다를 끼고 있지 않고 3억원이라는 비용이 드는 만큼 아직까지는 구입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 방류되면서 방사능 검사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지만 전남에서는 오요드와 세슘 2가지 항목만 검사 가능해 논란이 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정화조에 빠진 70대 구사일생

정화조에 빠진 70대 여성이 30여 분간 사투를 벌이다 구사일생으로 구조됐다.

10일 광주북부소방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4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서 사람이 맨홀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8분만에 인적이 드문 건물 사이에 있는 정화조에 빠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3m 깊이로 가득찬 정화조에 빠졌지만 양손으로 배관을 잡고 버티고 있던 상태였다. 출동한 소방대원은 내부 유해가스 측정 후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A씨를 구조했다. 구조된 A씨는 다행히 건강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폐지를 줍기 위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들어 갔던 중 정화조에 빠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남구 양림동 아파트 수돗물 ‘부적합’ 판정

950여세대 불편 겪어

광주시 남구 양림동의 한 아파트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와 950여세대가 불편을 겪고 있다.

10일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본부)에 따르면 이날 광주시 남구 양림동 한 아파트에서 실시한 수질검사에서 탁도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

관리사무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이 이상하다’는 주민 민원을 받아

상수도본부에 수질검사를 의뢰했고 오후 3시께 결과를 통보받았다.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949세대에 수돗물 식수 사용과 정수기 사용, 요리, 목욕 등을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4개의 경비실에서 2L 생수 6개 식수로 세대별로 배급했다.

상수도본부는 검사후 시작한 저수조(수돗물을 비축해놓은 탱크) 정수가 끝나는 11일 오전까지 수질이 개선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청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청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청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